

국민일보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012면 사회

경기도 평화누리길- 스위스 리기산 공동 홍보협약 체결

트레킹 코스에 표지판 설치 공동홍보·워크숍 등 추진

경기도 평화누리길과 '산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스위스 리기산이 글로벌 관광마케팅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스위스 중부 루체른주의 리기산(1798m)은 하이킹, 스키 등 산악레저를 즐길 수 있는 세계적 관광명소다.

경기도는 15일 스위스 루체른주 현지에서 리기산 관리소와 '평화누리길-리기산 공동 홍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평화누리길과 리기산 트레킹 코스에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알릴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고, 웹사이트와 리플렛을 이용한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양 기관 간 업무추진 우수사례 및 관리운영 노하우 공

유, 공동 워크숍 개최, 지역정보 상호 제공, 지역행사 공동 주관 및 참여 등도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리기산을 방문해 양측 간 교류협력을 제안한 뒤 올해 3월 리기산 관계자들이 평화누리길을 방문해 세부사항을 점검한 결과로 이뤄졌다. 평화누리길은 비무장지대(DMZ) 접경 지역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4개 지역을

잇는 총 연장 191km, 12개 코스로 구성된 경기도 최북단 도보 여행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이킹 관광대국이라는 점에서 평화누리길과 교류 협력할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평화누리길 세계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를 차근차근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폴란드, 체코 등과도 DMZ의 국제교류 협력관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im@kmib.co.kr

아시아투데이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026면 수도권/전국

경기도 평화누리길 세계화 시동

도-스위스 리기산 관리소 홍보협약 웹사이트 홍보·공동워크숍 등 진행

경기도가 평화누리길을 해외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알프스산맥 북동부 루체른호와 추크호에 둘러싸여 있는 스위스 명소 리기산(1797m) 관리소와 '평화누리길-리기산 트레킹 코스 공동 홍보협약'을 체결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리기산 관리소는 이번 협약에 따라 평화누리길과 리기산 트레킹 코스에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알리는 표

식을 설치하고 웹사이트를 활용한 콘텐츠 홍보, 리플렛을 통한 홍보 등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또 공동 워크숍 개최, 지역 정보 제공, 지역행사 공동 주관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이킹·트레킹 관광 대국으로 경기도 평화누리길과 교류 협력할 부분이 많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평화누리길 세계화를 위한 국제

협력체계를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리기산은 하이킹·트레킹·스키 등 산악 레포츠 명소로, 이를 즐기기 위해 유럽 각지에서 여행객이 즐겨 찾고 있으며 '산들의 여왕'으로 불리기도 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평화누리길과 리기산 간 '자매의 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두 지역 방문객의 교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의정부=이대희 기자

세계일보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Z13면 지방종합

평화누리길·스위스 리기산 관광 활성화 마케팅 손잡아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경기도 평화누리길과 스위스 리기산이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임순택 경기도 DMZ정책담당관과 스테판 리기산 관리소 대표는 15일 스위스 르체른주 리기 스타펠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화누리길 - 리기산 공동 홍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평화누리길과 리기산 트래킹 코스에 우호관계를 알릴 수 있는 표식설치, 웹사이트를 활용한 콘텐츠 홍보, 리플렛을 통한 홍보 등을 상호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양기관 간 업무추진 우수사례 및 관리운영 노하우 공유, 공동 워크숍 개최, 지역 정보 상호 제공, 지역 행사 등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양 국가내 다른기관과 이와 유사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협약서에 명시해 독점성을 확보하고,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기반을 다졌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측 간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시작해 '평화누리길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대표단은 스위스 리기산 외에도 폴란드, 체코 등을 방문해 DMZ의 국제교류 협력관계를 확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이킹 관광대국이라는 점에서 평화누리길과 교류 협력할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평화누리길 세계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를 계속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누리길-스위스 리기산 공동홍보 맞손

스위스서 道-관리소 홍보협약

경기도 평화누리길과 스위스 리기산(Mt. Rigi)이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관광 활성화(중부일보 2017년 11월 17일자 1면 보도)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임순택 경기도 DMZ정책담당관과 스테판(Stefan) 리기산 관리소 대표는 15일 스위스 르체른주 리기 스타펠(Rigi Starffel)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화누리길-리기산 공동 홍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평화누리길과 리기산 트래킹 코스에 우호 관계를 알릴 수 있는 표식설치, 웹사이트

트를 활용한 콘텐츠 홍보, 리플렛을 통한 홍보 등을 상호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양 기관 간 업무추진 우수사례 및 관리운영 노하우 공유, 공동 워크숍 개최, 지역 정보 상호 제공, 지역 행사 공동 주관 및 참여 등에도 함께 힘쓰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 국가 내 다른 기관과 이와 유사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협약서에 명시해 독점성을 확보하고,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기반을 다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리기산을 방문해 양측 간 교류협력

을 제안하고, 이후 올해 3월 리기산의 로저 요스(Roger Joss) 이사가 평화누리길을 방문해 세부사항을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측 간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시작, '평화누리길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이킹 관광대국이라는 점에서 평화누리길과 교류 협력할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평화누리길 세계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를 차근차근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들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리기산은 스위스 중부 루체른주에 위치한 1천798m 높이의 산으로, 하이킹이나 스키 등 산악 레저를 즐기는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세계적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다. 조윤성기자

도 '평화누리길' 세계적 명소 향해 전진

스위스 리기산 관리소대표와 협약 트래킹 코스 글로벌 마케팅 나서

경기도가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스위스 리기산 트래킹 코스와 평화누리길의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도는 15일 평화누리길과 스위스 리기산의 글로벌 마케팅 및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스위스 루체른주 리기 스타펠(Rigi Starffel)역에서 임순택 도 DMZ정책

담당관과 스테판(Stefan)리기산 관리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평화누리길-리기산 공동 홍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평화누리길과 리기산 트래킹 코스에 양 기관의 우호관계를 알릴 수 있는 표식 설치 ▶웹사이트를 활용한 콘텐츠 홍보 ▶리플렛을 통한 홍보 마케팅 등을 공동 추진한다. 아울러 ▶양 기관 간 업무 추진 우수 사례 및 관리·운영 노하우 공유 ▶공동 워크숍 개최 ▶지역 정보 상호 제공 ▶지역 행사 공동 주관 및 참여 등에도 함께 힘쓰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 내 다른 기관과 이와 유사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협약서에 명시해 독점성을 확보하고,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기반을 다졌다.

도는 지난해 11월 리기산을 방문하고 양측의 교류·협력을 제안했다. 이후 올해 3월 리기산의 로저 요스(Roger Joss)이사가 평화누리길을 방문해 실무협의 후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협약을 계기로 양측 간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시작, '평화누리길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임순택 DMZ정책담당관 등 도 대표단은 스위스 리기산 외에도 폴란드·체코 등을 방문해 DMZ의 국제 교류·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현장행보를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이킹 관광대국이라는 점에서 평화누리길과 교류·협력할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평화누리길 세계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차근차근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